

“진정한 사회복지는 주민 참여가 중심 돼야”

은평 신사·송파 삼전복지관, '마을 지향복지관' 사업 선정

“저희는 신사동에 살면서도 복지관이 있는지 몰랐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 인줄 알았어요.” (은평 육아 품앗이 북지북지 회원)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복지관을 안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가난한 집 아이라고 왕따 당한다고요.” (사례관리 참여 가정 엄마)

“아이들과 복지관에 와도 있을 곳도 없고, 대기할 장소나 쉴 곳도 없어요. 간담하나 설문조사는 뉘날 하면 뭐예요, 바뀌는 것도 없는데...” (신사 어린이 도서관 이용자)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복지재단에서 공모한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에 선정돼 '은평 품앗이육아' 회원들에게 장소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은평 품앗이육아' 회원들.

지역사회복지관이 198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지역주민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복지관이 보유한 자원에 따라 제공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지역복지의 주체가 되는 '마을 지향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다. 두 복지관은 서울복지재단이 지난 3월 공모한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에 선정돼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은 복지기관이 마을(공동체) 지향의 관점을 갖고 주민참여중심의 복지 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일컫는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따사같이 주민협동스쿨'을 통해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통해 지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에서 육아 품앗이 모임을 진행하던 '은평 품앗이육아(대표 안세정)' 회원 40여 명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6월 11일에 복지관 5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층재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총괄부장은 “육아 품앗이 모임을 진행하던 '은평 품앗이육아' 회원들이 모임의 활동 장소를 고민하던 중 신사 복지관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 장소 대어를 요청했다”며 “우리 복지관은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열린마을' 복지활동가 마을'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이 자생적으로 대안 교육과 교육 시스템 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3~5년 정도 장소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평 품앗이육아'의 연령대별 아이들과 엄마들은 주1~2회 복지관에 모여 아동도서 서로 읽어주고 어떤 책이 좋은지 추천해준다. 또 서로의 육아법을 공유하거나 육아를 하며 느꼈던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기도 한다.

안세정 은평품앗이육아 대표는 “은평구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지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돕는 제도나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이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모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관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 언어·미술치료 △복지관 자원봉사단체가 펼치는 성폭력 예방인형극 '꼬마도반'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도서관협동조합 등을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은 '동네에서 재미있게 살기'를 통해 지역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직원교육과 주민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지향복지실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주민정기모임과 지역이슈를 발굴해 주민들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재능나눔교실, 주민교육사후모임을 통해 주민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책 읽고 싶다면 탑골공원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이동도서관 개관



탑골 이동 도서관에서 서가에 꽂힌 책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는 어르신.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희우)가 탑골이동도서관을 열어 탑골공원을 찾는 어르신과 일반 시민들에게 찾아간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3년간 자체 도서관을 운영한 경력과 5만 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탑골 이동 도서관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6월 26일 개관하는 '탑골 이동 도서관'은 어르신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 열람, 일일도서 대여 및 독서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다.

'탑골 이동 도서관'의 도서대여 및 도서 문화 전파 등 중요 역할은 노인 일자리

로 선발 된 어르신이 '책 문화 보부상'으로서 활약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서로 책을 공유 할 수 있는 '도서 바자회'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북 콘서트' 현장에서 아끼는 책 속의 좋은 글귀를 전할 수 있는 '도서 캠페인' 등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린다.

최희우 센터장은 “탑골 이동 도서관은 어르신들의 주된 활동 공간에서 어르신이 직접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주력하고 있다”며 “탑골 공원의 숨어 있었던 건 강한 역동성과 자생력을 이끌어내어 특색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6911-9554

이나은 기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7월부터 무료점심 제공

현대오일뱅크 5천만원 지원...내년 6월까지 진행

전태종복지재단 산하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홀몸 어르신과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에게 따뜻한 점심한끼와 함께 1회 특식을 제공한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은 “외부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돼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서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계층 어르신에게 매일 점심 한끼와 월 1회 점심 특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02) 999-9179

이나은 기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6월 18일 복지관 3층 정진실에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협약식을 진행했다.

광진노인복지관, 7월 2일부터 의사소통 프로그램 실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어르신들의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계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을 여는 대화'는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층 취미교실에서 열린다. 참여 어르신들은 △나의 의사소통방법 알기 △나의 감정 표현하기 등을 주제로 단계별 의사소통법을 배우게 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여 노년기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자아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466-3900

이나은 기자

거리의 미술동호회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

'아이들 꿈·희망 벽화에 답'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 놀이터의 미팅했던 공간이 원숭이, 사자 등 동물과 산과 바다로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부산 거리의 미술동호회(회장 안홍수)가 6월 15~16일 양일간 복지관 장난감 놀이터 '아마존'에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아마존'은 아이들의 마음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복지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부산거리의 미술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주게 됐다”고 전했다.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활동은 거리의 미술동호회 부산지역 회원 15명이 참여하여 진행했으며, 용호복지관 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 놀이터 '아마존'에 벽화를 그린 부산거리의 미술동호회 회원들.

난감 놀이터 '아마존' 내부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벽화를 가득 채워 넣었다.

부산 거리 미술동호회 안홍수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호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복지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선뜻 도움을 손길을 건넨 부산거리의 미술동호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덧붙였다. (051)628-6737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한국불교승가교육원 교육생 大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한국불교 승가교육원은 한국불교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영남불교예술대학의 분원으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올바른 수행자의 자질을 구비하고자 출가자나 미수계자 또는 승려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승려기본예절 및 기본의식과 체계적인 수행법등을 교육하고자 범 종단을 초월한 한국 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예술 승가교육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육전사 조실 청강근스님과 대 강백이신 자량근스님을 증명 및 수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최고의 교수진구성으로 알찬 승가 제반 기초교육과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기초자질을 함양코자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월 기본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내용

| 구분 | 강의내용 | 요일 | 시간 | 모집인원 | |
|-------------------|---|---|---------|---------|-----|
| 기초학과 12주 | • 승가기본예절 • 조석예경편(사찰), 불공편, 요령목탁법 • 천수경의 | • 불공편 관음시식 • 발우공양작법 | 목 | 2시 ~ 5시 | 00명 |
| 수계 및 수료 | • 사미율의 • 예비도량참법 | • 부처님생애 • 초발심자경문 • 수계 및 수료식(수계증 및 수료증 수여) | 2박 3일 | | |
| 전문반(기초학과 수료자에 한함) | • 예경편(사찰), 각단불공편, 권공편, 영반시식편, 정안편, 대령, 관육편, 배송편, 범패기능연마, 사물타법, 수행경문,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 목 | 2시 ~ 5시 | 00명 | |

■ 개원일시 : 불기 2557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부터 12주간

■ 회향기도 : 13주차(화, 수, 목) 마지막 회향시 수계 및 수료법회 봉행

■ 교육등록금 : 50만원(교재, 바루, 식대, 수계비포함)

■ 준비물 : 반명함판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 장삼, 요령, 목탁, 필기구 (가사 및 장삼 미소지자는 별도 합동 주문제작)
※ 기타 자세한 내용문의는 본원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한국불교 승가교육원

■ 접수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영남불교예술대학 한국불교승가교육원